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Korean American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발행번호 7 **가을Fall 2015**

KoAm 에세이– 임성철 목사

윤수병 목사님과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윤수병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시간을 조정하여 8월 31일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Wise, VA로 가는 길은 정말 시골길이었다. 같은 산간 지역인데도 또 이 곳 지형과 다르게 가는 곳마다 높은 산들이 길가 곁에 놓여 있다. 가면서도 이런 먼 곳에 사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매주마다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목사님을 만난다는 기대에 1시간 30분의 길이 멀리 느껴지지 않았다.

Wise에 하나 밖에 없다는 맥도날드 점에서 처음 뵈는 분이지만, 금방 알아 볼 수가 있었다. 동양인이 거의 없는 곳이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연세보다도 훨씬 젊어보이고 건강하게 보이신다. 그분은 나를 이끌고 평생 몸 담으신 교정으로 인도한다. 그곳 대학 식당 음식을 대접 받았다. 생각보다 음식이 좋았고 맛있었다. 우리는 식당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트라이시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80년경이고 킹스폴트의 이스트만 회사에 계신 몇몇 분과 다문화 가정 몇몇 분이 시작하였다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을 모셔야 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자신을 찾아 왔다는 것이다. 자신이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목사를 모실 수 있을 때까지 얼마간 도와 주겠다고 시작했는데, 무려 10년 동안 Wise에서 교수로 일하시면서 매주 킹스폴트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오고 가셨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트라이시티에 한인교회가 서게 되었던 배경이다.

그분은 “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시기에 나는“혹시 김민부 목사님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이 “김민부 목사라고 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다. “네, 그 분이 나이 드셔서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니 목사님이 웃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네” “김민부가 목사가 되었어!” 하신다. 당시 김민부씨는 브리스톨에서 처음 중국 음식점인 ‘골든 드라곤’을 하신 분이시다.

김민부 목사는 자신과 같은 서울대학의 후배이기에 편하게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허허…”하신다.

제가 윤수병 목사님을 알게 된 계기가 김민부 목사님 때문이다. 김민부 목사님은 현재 아틀란타에 거주 하시는데, 오랫만에 자신이 처음 와서 살던 브리스톨을 방문하셨고, 이곳에 한인 교회가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 오신 것이다.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아틀란타에서 교회 다닐때 같은 교회에 가끔 나오셨던 분이셔서 서로 놀라고 반가워했었다.

윤수병 목사님과 식당에서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하고나서, 자신이 명예교수로 있는 집무실을 보여 주신다. 가는 곳마다 아는 분이 많아 이곳의 터주대감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하신 윤수병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Univ. of Virginia –Wise 교정에서
윤수병 목사님과 함께

목차

코암 에세이	1
추천의 시	2
한인회 소식	2
신앙의 글	3
선교지 소식	3
추천도서	4
그림으로 보는 명상	4

추천의 시

Image from google

늘, 혹은 때때로 _ 조병화

늘,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일 인가

늘,혹은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 인가

카랑 카랑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늘,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다운 일 인가

그로 인하여
적적히 비어 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 인가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명확한 확인인가
아, 그러한 네가 있다는 건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인가

한인회 소식

트라이시티 한인회 여름 야유회

이고장 한인들의 야유회 및 정기총회가 8월 30일(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Bristol, TN에 있는 Steele Creek Park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전쟁에 참여한 역전의 용사들이 참석하여 좋은 친교 시간을 갖었습니다.

준비하신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회장, 서갑식
423-288-6279(h)
kabseo@gmail.com
총무: 허림, Philip Crowder
423-914-0262(c)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함께

발행번호 7

신앙의 글– 천영애

트라이시티 고장은 참으로 아름답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 아늑함과 포근함을 준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을이다. 나는 늘 가을을 좋아한다. 내가 떠나 온 뉴욕도 허드슨 강을 둘러 안고, 높은 산이 많아 가을이면 더욱 더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다.

가을을 맞이하며 나의 마음이 이곳에 더욱 더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다. 울긋 불긋, 가지 가지 사이로 부끄러운듯 밀고 나오던 단풍잎이 어느덧 지금은 오색의 황무지개 색으로 우아하게 뽐내며, 산 끝은 황토로 도배하듯 환상적이다. 오색으로 물들어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햇살은 고향 시골의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는 벼 이삭을 상기시킨다.

얼마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밤을 주으러 갔다. 밤나무를 보는 순간 환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반갑고 기뻤다. 어려서부터 밤을 주워 구어 먹던 고향 생각에 고국에 온 기분이었다.

나는 이런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린다.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모두가 다 감사, 감사, 또 감사 드린다. 얼마나 많이 주시고, 참으시며 나를 기다려 주셨나..... 내가 살아 온 삶을 뒤 돌아 보노라면 죄 투성인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옆에 모셔두고 할 일 다하며 살아 왔다. 그토록 무소불능하신 창조주가 끝까지, 기다리시며 지켜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 주신 지가 벌써 일년이 되어 간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흐른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누가 말했던가!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많은 일들을 보았고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국분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생각보다 많이 자리 잡고 계심을 알았다. 아직은 안면만 있는 분들이지만 왠지 안심이 된다. 외롭지 않을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면만 있던 분들과 구면이 되고 벗이 되어 좋은 친구들이 되길 하나님께 진심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린다.

선교지 소식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Kyle Wilson(카일 윌슨) 선교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되었습니다. 듀크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지금 멕시코 유카탄에서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던 땅에서 아이들에게 멋진 학교를 만들어 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안에서 꿈을 꾸게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가을Fall 2015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편집인: 임성철 목사

Editor: Seong Im
2109 Carolina Ave.
Bristol, TN 37620
www.tricitykp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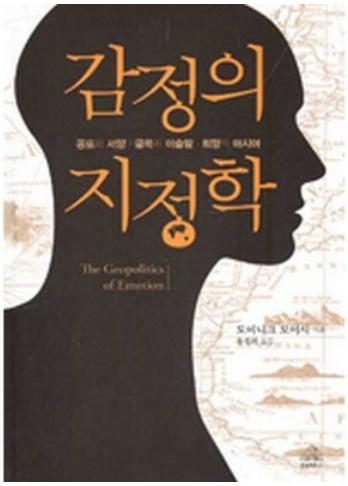
전화: 404-683-2565

Email: isaacim86@gmail.com

기고 방법: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글이 있으면 편집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 주소 TO;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 추천



소르본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프랑스 국제문제연구소를 공동 창설하고, 현재 고문으로 재직중인 도미니크 모이시가 쓴 책이다. 세계를 3개의 지정학적으로 구분하며, 서양은 공포, 이슬람은 굴욕, 아시아는 희망이라 말한다. 240페이지의 이 책은 흥미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알게 한다. 강추!!

그림으로 보는 명상 – 폐허 속의 희망